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www.bkc.org ♦ bethel@bkc.org
Tel: 949.854.4010 ♦ Helpdesk(Text-only): 949-229-1181

**교회학교 및 그 외
주일에배 안내**



- 영아부(0-1.5세) / 본당 1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1.5-3세) / 본당 2층 유아부실
9:00AM, 11:00AM
- 유치부(3세-PreK) / 할렐루야채플
9:00AM, 11:00AM
- K-1(킨더가든-1학년) / 임마누엘채플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유년부실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HS) / 비전채플, 찬양채플
9:00AM(찬양채플),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HS) / 비전채플, 찬양채플
9:00AM(비전채플), 11:00AM(찬양채플)
- 한어중고등부(CIM) / 샬롬채플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조이채플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1:15P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3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6시 45분 · 목요일/오후 12시 30분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Prisider **예배 인도자**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Altogether **다같이**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1부/만유의 주재(찬48장/새32장)

기도 Prayer..... Altogether **다같이**
1부/김문경 장로 2부/김백열 장로 3부/김동건 집사 4부/신영록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기드온의 300용사(박지훈 작곡)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Media **방송실**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 2, 3, 4부/사도행전(Acts) 10:9-23 Altogether **다같이**

말씀 Message 1, 2, 3, 4부 Rev. Solomon Kang **강솔로몬 목사**
빵 가루 집안

적용찬양 Song of Response Altogether **다같이**
1, 2, 3부/죄짐 맡은 구주(찬487/새369장), 우릴 사용하소서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Dedication and Closing Altogether **다같이**
1, 2, 3부/여전히 Jesus Alone

*축도 BenedictionRev. Solomon Kang **강솔로몬 목사**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목회자 칼럼
Pastor's Column

내...가...늘...지켜요

I...always...keep it



강솔로몬 목사 / Rev. Solomon Kang

1996년 11월, 한국의 한 TV 프로그램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며 각종 언론에 대서특필 된 적이 있습니다. 첫 방송 직후 "다시 보고 싶다"는 요청이 빗발치자, 다음 주 같은 시간에 제1회 방송을 그대로 재방영하는 등 방송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코너는 도로 위에 안전선과 안전 속도 주행 등 기본적 교통 안전 규칙을 지키는 차량에 대해 상품으로 냉장고 한 대를 주는 기획이었던 <일요일 일요일 밤>에의 코너, '양심냉장고'입니다. 그 무렵 국내 운전문화는 아직 성숙 단계에 있었고,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지금보다 낮았습니다. 자가용 보유가 급격히 늘던 1990년대 초반의 문화 지체 현상도 한몫 했습니다. 당시 통계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까지 매년 교통사고 사망자가 1만여 명에 달했고, 이 코너가 방영된 1996년에는 12,653명으로 기록됩니다.

첫 촬영 날, 예상대로 심야 시간 인적이 드문 도로에서 많은 차량이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한숨을 쉬며 속절없이 기다리던 중 새벽 4시 13분, 파란색 티코 한 대가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 멈춰 신호를 지켰습니다. 제작진은 감격해 차량을 따라가 정중히 인터뷰를 청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인사를 건넨 이는 장애가 있는 부부였습니다. 진행자 이경규 씨가 당황스레 "왜 신호를 지켰나요?"라고 묻자, 운전대를 잡은 남편은 느린 말투로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가...늘...지켜요." 이 장면이 전국으로 일파만파 퍼지기 시작하여, "누가 장애인인가"라는 제목의 기사 등이 쏟아져 국내 운전 문화 뿐만 아니라 시민의식과 양심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결을 보시며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흠 없고 정결하게 살아 왔는가 물으신다면, "제가 늘 지킵니다"라고 답대히 답할 수 있는 이가 얼마나 될까요? 누가 보고 있지 않을 때도 멈출 수 있는가? 남들이 다 지나갈 때도 지킬 수 있는가? 아니면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는 말로 불의와 타협하고, 잘못된 줄 알면서도 눈 감고 있지는 않나요? 신호등 앞에 선 그 티코처럼,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선한 양심을 지키는 작은 멈춤이 우리 공동체의 안전과 거룩을 세워갑니다. 차별이 아닌 구별된 삶으로 부르신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일상의 신호등 앞에서 신실한 믿음과 그에 합당한 행실을 늘 지켜 가길 소망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 9:14).

In November 1996, a Korean TV program created a social stir and was splashed across major news outlets. Viewer requests to "see it again" poured in after the first episode, and the network did something unprecedented—rebroadcast the entire first episode in the same time slot the following week. The "Conscience Refrigerator" (양심냉장고) on <Sunday, Sunday Night> show, promised a refrigerator to any driver who obeyed basic traffic-safety rules on the road, such as stopping at the stop line and keeping the posted speed. At the time, Korea's driving culture was still maturing, and public awareness of traffic-law compliance was lower than it is today. A cultural lag accompanied the rapid spread of private car ownership in the early 1990s. Statistics show that into the early 2000s more than 10,000 people died each year in traffic accidents; in 1996, when this TV program aired, the figure was 12,653.

On the first day of filming, as expected, many cars on a late-night road ran the red light. Then, at 4:13 a.m., a blue Tico came to a full stop at the crosswalk's stop line. The excited crew followed the car and politely requested an interview. At the window was a married couple with disabilities. When host Lee Kyung-kyu asked, somewhat startled, "Why did you obey the signal?" the husband at the wheel answered slowly, "I... always... keep it." The scene spread nationwide, and headlines such as "Who is disabled?" sparked serious questions not only about Korea's driving culture but also about civic awareness and conscience.

If God were to look at our lives and ask whether we have lived blamelessly and purely with a good conscience, how many of us could answer boldly, "I always keep it"? Can we stop when no one is watching? Can we keep the right way when others rush through? Or do we say, "Everyone lives like that," compromise with injustice, and close our eyes to what we know is wrong? Like that Tico at the light, a small stop—choosing a good conscience before God and our neighbor—builds up the safety and holiness of our community. Not a life of discrimination, but the set-apart life to which the Lord has called us. At the everyday lights of our lives, may we keep faithfulness and deeds worthy of that faith. "How much more will the blood of Christ, who through the eternal Spirit offered himself without blemish to God, purify our conscience from dead works to serve the living God" (Heb 9:14).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강솔로몬 목사

빵 가루 집안 사도행전 10:9-23

1. 우리 사회/교회/가정에서 '양심 냉장고'와 같은 프로그램을 기획 한다면 무엇을 포상하면 좋을까요?

2. 유대인 베드로와 백부장 고넬료의 유사점을 찾아봅시다 (행10:2-3; 9-10). 베드로는 왜 주님의 음성 "잡아 먹어라"를 순종하지 못했습니까? (12-14절)

3. 내 자신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선입견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아이러니'를 나 자신에게 대입해봅시다 (행 9:43, 10:6, 10).

4. 우리 교회나 셀에서 받아들이길 주저할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이 사람들은 대다수의 교인들과 어떻게 다른가요? 그들을 받아들이기를 주저하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5. 교회는 빵 가루 집안입니다. 전통이나 관습 때문에 지체되거나 놓치고 있는 '복음의 여지'는 없는지 돌아봅시다. '나의 땅 끝'은 누구입니까?

6. 참된 '무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 의식으로 변화되어야 할 점들을 적어보며 오늘 구체적인 결단을 해봅시다.

적용하기



선교 후기
우간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땅, 우간다

이번 단기선교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간다에 베푸신 기적들을 보며 행복 하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깊이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박민수, 이순영 선교사님이 땀 흘려 일구어 놓으신 가나안 빌리지의 장애인들은 우리 팀 11명을 바나나잎으로 엮은 치마와 면류관을 쓰고 온몸으로 찬양하며 열렬히 환영해 주어 우리의 긴 비행의 피로감을 씻어주었습니다.

주일 예배에는 가나안 빌리지의 모든 식구들과 주변의 장애인을 초대해서 예배당을 꽉 채웠는데, 모두가 하나님을 온몸으로 힘을 다해 찬양하는 천국 축제 같은 예배를 3시간이나 드렸습니다.

이번 선교에서 저희가 집중한 사역은 의료, 안경, 아동, 미용, 그리고 두 가지 축제 사역이었습니다. 특히 시굴루 섬은 의료팀을 처음 접하는 곳이라고 하셨는데 생전 처음 페리가 뜨지 않는 기상천외한 일을 겪으면서 난감했지만, 하나님

이 길을 열어주셔서 경찰 보트를 타고 들어가 오 토바이와 시장님 승용차를 타고 사역지로 이동했고, 사역을 마친 후 타기로 한 페리가 취소되면서 저희팀은 섬 주민이 타는 작은 목선을 타고 물을 퍼내며 나와야 하는 아찔한 경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모든 사역을 다 할 수 있었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함께 전할 수 있었던 기적에 감사했습니다.

첫 번째 축제인 축복의 집은 장애가 있는 가난한 분들을 염신하여 작은 집을 지어드리는데 이번에는 부수알레 지역에 지적 장애가 있는 두분께 #185, #186호를 지어 오픈하는 온 마을이 기뻐하는 축제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 선교의 절정인 두 번째 축제는 구원의 우물 오픈 축제였습니다. 그동안 오염된 물을 마시며 많은 질병에 시달리던 소노 마을에 구원의 우물이 열리면서 깨끗한 물과 함께 예수님의 생명

의 물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도지사와 주민들과 함께 드린 감사의 찬양과 예배는 마을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작은 헌신을 사용하시어 복음의 씨앗을 심으셨음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간다 땅에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이혜경 권사



사역 소개
금다식

특별한 식사



3년 전, 교회학교 여러 부서가 각각 식사를 준비하고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이 힘을 합쳐 시작한 '금다식(금요일 다음세대를 위한 식사)'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입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교회의 미래인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신입 장로님과 권사님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헌신적인 섬기심으로 첫 회부터 교회학교 청소년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그때 봉사자로 참여하여 그 풍성한 은혜와 즐거움을 함께 나누었는데, 사실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는 뒤에서 설거지 하면서 교제를 나누는 과정에서 은혜를 더 많이 받았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되어 밤 8시까지 이어집니다. 250명 분량의 식사를 준비하고 제공하고, 뒷정리까지 마치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음식재료들을 구입하느라 때로는 마켓을 두세군데 다니기도 합니다.

다양한 메뉴로 청소년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고, 배추 다섯 박스로 김치를 담은 적도 있으며, 스테이크도 구워 주고, 며칠 동안 곰탕을 끓여본 적도 있습니다. 경험이 없는 저에게는 옆에서 헌신적으로 재능과 사랑으로 도와 주시는 봉사자 분들과 젊은 예살 친구들 도움 없이는 할 수 없는 귀한 사역입니다. 좋은 재료로 정성껏 만든 음식은 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지만, 동역자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은 힐링이 되는 귀한 경험이 되었으며, 어느 집사님께서 사역 중에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는 간증을 나누신 것처럼 말이죠. 때로는 봉사자들을 위하여 종이 접시,

utensils, 맛있는 다과를 종종 보내주시며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준비 하는 시간은 항상 풍부하고 즐겁습니다.

특히 각 팀 PTA 봉사자들의 한 달씩 돌아가는 헌신적인 지원과 예살 청년들의 열정적인 도움은 금다식 사역의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부서에서 돌아가면서 봉사자들이 책임 맡아 나오지만 앞으로는 스스로 맡은 한 달 동안은 self sufficient 하면 더욱더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미래인 청소년들이 맛있게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 모든 어려움이 보상받는 듯한 뿌듯함과 행복함을 느낍니다. 완성된 음식을 써브할 때 제일 행복하고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도 금다식 사역이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박성남 집사

사역 간증
새가족

설렘과 섬김이 함께하는 그린텐트



7년 전 베델교회에 새가족으로 왔던 서머했던 저희 부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설과 섬김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고마운 새가족팀을 소개합니다.

아직도 캄캄한 하늘을 바라보며 주일 새벽 5시부터 발 빠른 행동으로 모든 테이블 세팅을 끝내고 제1텐트에서 6시 30분부터 'Jesus Alone'을 외치며 70여 명이 소속되어 있는 새가족 섬김이 시작됩니다. 각자 소속된 자리에서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새가족을 설렘과 흥분된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1부 예배가 끝나면 담당 목사님이신 조 목사님을 중심으로 새가족 팀원들이 둘러서서 기도와 교제로 서로를 격려하며, 새로 오시는 분들을 어떻게 도울지 지혜를 구하고 의견을 나눕니다. 철저한 프로 정신으로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모습이 정말 은혜롭고 든든합니다.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새가족과 봉사자들을 위한 간식이 매주 은혜롭게 준비되는 것입니다. 누구랄 것도 없이 서로 숨씨 있게 준비해 오시고 팀장님의 배려로 풍성한 간식 식탁이 마련됩니다. 차량부에서는 새가족이 불편하지 않게 빠른 주차를 돕고 영접부로 연결해 줍니다. 영접부에서는 차량 앞으로 직접 나아가 새가족을 본당으로 모셔갑니다. 정해진 바나바는 옆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나면 2층 새가족 교육실로 인도하여 담당 목사님께서 교회를 소개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기도를 받습니다. 이어 함께 새가족 소속의 그린 텐트로 내려와 간식을 하

며 안내를 해 드리고, 바나바는 새가족 등록과 교육 그리고 각 셀 목장으로 배정되기까지 낯설어하지 않도록 교회를 알려드리고 베델의 식구가 되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그 섬김의 현장에서 느껴지는 것은 주 안에서 참 기쁨으로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손을 잡고 걸어가는 기쁨을 매주 경험하고 있습니다. 말없이 묵묵히 새가족팀을 위해 기도하며 섬기고 리더십을 보여주시는 팀장 내외와 각 부서 리더분들께 감사드리며, 그 옆에서 함께 서 있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베델에 오셔서 아직 서머하시다면 새가족팀으로 오셔서 많은 분들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새가족 그린 텐트로 오세요! 환영합니다.

주정숙 권사

훈련 간증
전도폭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는 2021년 11월, 김한요 담임목사님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주님을 모르고 살아왔는데, 제 인생의 반이 지나서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양육반과 제자반을 이어서 공부하였고, 그때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며 말씀 안에서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제 안의 연약함은 금세 드러나 오랜 습관과 게으름이 다시 덮였고, 점차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전도폭발 훈련을 접하게 되었고, 복음의 핵심을 듣는 순간 '나도 할 수 있겠다'는 마음이 생겨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3개월 정도면 마무리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무려 5단계까지 이어지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는 막막하고

두려운 마음이 컸습니다. 특히 외워야 할 내용이 많아 어려웠고, 갱년기로 인한 건망증까지 겹쳐 외운 것을 금세 잊어버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함께해 주시는 팀원분들의 격려와 도움으로 1단계를 무사히 마치고, 지금은 4단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전도폭발'이라는 이름만으로도 부담스럽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지만, 저 역시 '아주 신실하고 믿음이 깊은 분들만 할 수 있는 훈련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참여하면서 오히려 제가 받는 은혜가 훨씬 크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전도의 사명을 가르치신 이유를,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깊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4단계까지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조금이나마 하고 있구나'라는 안도감 때문인 것 같습니다. 1단계를 시작할 때 저는 복음의 핵심 내용

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정확히 외우려 애썼습니다. 제 부족한 신앙적 지식이 드러날까 두려웠고, 대상자에게만큼은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님께서 제 입술을 사용하시고 대상자의 마음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4단계에서도 성령님께서 함께하시리라 믿습니다. 저의 부족한 입술과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권미경 집사



교회학교
학부모 간증

두 마리 토끼 잡기 중

온유는 팬데믹 동안 엄마와 열심히 한글 공부를 해서 한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배운 한글을 잊지 않기 위해 집에서는 계속 한국말을 사용하고, 한글 책을 보며 TK와 K를 차근차근 거치면서 이제 1학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글자를 하나하나 읽고 쓰는 단순한 연습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짧은 글도 자연스럽게 읽고 쓸 수 있게 되었고, 한글에 대한 자신감도 점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특별히 방과 후 활동이 없는 온유는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 외에는 대부분 놀고 또 노는 시간이었습니다. 엄마는 온유가 배운 한글을 계속 유지하기를 바라며, 매일 큐티 후 기도문을 노트에 써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왜 나만 해야 해요?"라고 물어보았지만, 한국어를 알아야 책을 계속 읽을 수 있고, 한국에 여행 갔을 때 가족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다고 설명하자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귀찮아하면서도 온유는 차근차근 글씨를 쓰기 시작했고, 기도를 적는 시간이 점점 즐거

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글로 쓰여진 기도를 한자 한자 읽으며 천천히 써서 속도가 느리고, 줄에 맞추기도 어려워 글자 크기도 들쭉날쭉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 정도 지나자 줄 안에 일정한 글씨로, 그리 오래 걸리지 않고 노트에 기도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기도문 쓰기를 이어온 온유에게 박수를 보냈고, 다른 방법도 많을 텐데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기도로 한글을 계속 공부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베델교회 오이코스 예배를 통해 부모가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참 감사했고, 가정에서



도 매일 저녁과 주일 예배 전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아이가 잠들기 전 그날 말씀을 바탕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음이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이제 1학년이 된 온유는 새싹 큐티인이 아닌 셋별 큐티인으로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큐티 후 스스로 기도를 적고 읽습니다. 글자가 틀리기도 하지만 또박또박 써 내려가는 모습이 사랑스럽습니다. 최근에는 '가족이 하나됨을 미룰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멘'이라고 적었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가족이 온유의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Micah Baek 집사

교회학교
BYM 교사 간증

작은 섬김이 주시는 큰 은혜



짧은 글에 셀 수 없이 많았던 은혜를 다 담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서야, 비로소 한마디를 시작합니다.

BYM과 접점이 없던 제가 어떻게 사역을 하게 되었을까요? 영어가 모국어도 아니고, 대단한 여유가 있지도 않았던 제게 BYM으로의 권유는 몇 번이고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본보기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저의 마음을 바꾸셔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 하나님만 붙잡

을 수밖에 없는 저의 곤고한 삶이 바로 너무 완벽한 때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등부(Holos)의 일원이 된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이들을 통해 또 Holos crew들을 통해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I came to Holos to fall and rise together. 저는 이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평안과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의심과 반항의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반항심 가득했던 화려한 학창 시절의 경험 또한 이렇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아이들에게 "이러면 안 된다"라는 말보다 "I understand"라고 말하게 하시려 했음을 깨닫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것만 같은 광야를 걷는 것도, 세상의 성공과

물질이 주는 평안함 없이 오히려 그 광야 속에서 누리는 당신과의 친밀함을 선택하라는 고백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복음을 외치는 것이 곧 내 자신에게 외치는 외침이 되어, 나를 살리시려 부르신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순간들이 벅차게 기쁩니다.

Thank You for gathering all of us here. 하루하루의 삶의 고단함과 싸워내며 어떤 모습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왔든, Father God welcomes us with all His heart. 주일 아침 9시, 우리는 서로를 보며 두 팔 벌려 웃으며 껴안습니다. 주님께 한 걸음을 드리려고 함께 싸우는 오늘, 아이들과 함께 이곳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자음으로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낼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Who did? God did!

Ashley Park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 기획/행정: 주성필 목사
- 총성/훈련/BCA: 정승락 목사
- 소망/선교: 이충경 목사
- 기쁨/찬양/전도: 박경철 목사
- Joy/화평/섬김: 박성권 목사
- 사랑/QT: 조태현 목사
- 은혜/예배: 서동민 목사
- 믿음/공동체: 조동현 목사
- 운유/말씀/QTin: 배홍수 목사
- BGC 담임: Dan Nam 목사
- BGC(College/Worship): Peter Lee 목사
- BGC(Young Adult): Daniel Yoon 전도사
- 일본어/수요예배/기도: 손용주 목사
- 예살채플(총괄): 강솔로몬 목사
- 예살채플: 공병주 전도사
- 예살채플: 이형석 목사
- 예살채플: 최요셉 인턴 전도사
- 영어고등부: 김한나(Hanna) 전도사
- 교회학교(총괄)/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목사
- 영어중등부: 이지원(Cindy) 전도사
- 한어중고등부: 이성우 목사
- 초등부: 이정연 전도사
-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 K-1: 정가영(April) 전도사
- 유치부: 정티나 목사
- 영아부/아기학교: 최미정 전도사
- 소망부: 김재은 전도사
- Beyond the Blue: 이관혜 전도사
- 병원심방: 김현일 협동목사
- 상담: 황성철 협동목사
-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베델 콰이어 및 찬양팀◎

- 지휘자: 김형직 목사
- 솔리스트: 최정원
- 뮤직디렉터: 정봉화
- 반주자: 한현미, 박정연
- 예살 워십: 조요셉

◎교회 직원 및 간사◎

- 사무장: 조주은
-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 사무실: 인현미, 이미옥
- 재정실: 이수민
-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 방송실: 민운기, 김앤드류(인턴)
- 목회지원/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 컨텐츠 디렉터: 최종형
- 음향: 강창위, 한 진
- 디자인: 박선경
- 웹/IT: 김정아
- 수양관: 오춘란

사역광고

추수 감사 축제

가을의 풍요로움과 함께 감사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The Story of Bethel"이라는 테마로 베델의 온 교우가 한데 모여 화합과 기쁨이 넘치는 추수 감사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목장별로 정성껏 준비하는 발표제와 풍성한 전 교인 만찬을 통해, 한 해 동안 베풀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서로의 삶을 축복하는 소중한 시간이며 이 모든 준비의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 되고,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축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꼭 필요합니다. 특별히 축제 당일 원활한 진행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해 주실 손길을 찾고 있습니다. 봉사 경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쁨으로 섬겨주실 분이라면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교우 여러분이 작은 봉사 하나하나가 모여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되고, 추수 감사 축제를 더욱 빛내는 힘이 되며 그 헌신적인 섬김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귀한 재물이 될 것입니다.

이번 축제는 매년 반복되는 단순한 행사를 넘어, 우리 모두의 신앙을 다시금 돌아보고, 서로의 존재에 감사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풍성한 식탁에서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며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 ▶ 일시/장소: 11월 23일(주일) 오후 4시, 본당과 코트야드(만찬)
- ▶ 봉사자 모집: 식사 준비와 진행 등(팀장에게 개별 문의)
- ▶ 문의: 조광중 집사 (949)706-4168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10월)	10/5: ①부-김병인	②부-김문식	③부-김성귀	④부-이진호
	10/12: ①부-김병주	②부-김병찬	③부-김성균	④부-김지인
	10/19: ①부-김인권	②부-김세진	③부-김응진	④부-남경인

헵시바 토요일 새벽 대표기도(10월)	10/4: 김유호	10/11: 정봉화	10/18: 김정욱	10/25: 김종철
----------------------	-----------	------------	------------	------------

강단꽃(9,10월)	9/28: 윤태경, 정윤경	10/5: 엄기완, 윤주원	10/12: 윤성자, 최경식	10/19: 이수민, 최지은
------------	----------------	----------------	-----------------	-----------------

[의무실(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오세영(한의학), 간호사-오선희 다음주 | 의사-Charles Oh(이비인후과), 간호사-윤성자, 김리자

선교후원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옥, 김진영(김은경), 장주원(장한나), 이희숙,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Reza BAM | 서형렬(서정희)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 | 유요한(유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삭(정인나)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결(양선) 브라질 | 브레노(에스더) 온두라스 | 이동철(이수민)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김인성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창의적접근지역 | 길예평(길진명), 이상훈

*선교기관 | 나눔선교회,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어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MMMA, GP미주본부, AU&W,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푸른초창의 집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TS, CGN TV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수요일저녁예배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과 뜨거운 찬양으로 한주의 중심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일시/말씀: 10월 1일(수) 저녁 7시 30분, 서동민 목사

문의: 김중학 집사 (949)285-9408

*QR코드를 스캔하셔서 함께 부를 찬양을 미리 만나세요!



◆ J+ 초청 수요일저녁예배

국적과 인종을 넘어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으로 예배의 회복과 부흥을 꿈꾸는 J+ 찬양팀을 초청하여 열정적인 찬양, 말씀과 간증, 뜨거운 기도가 있는 은혜로운 예배의 시간을 가집니다. K-Pop 현역 최고의 크리스천 연주자들과 다국적 뮤지션들로 구성된 J+와 함께하는 찬양의 향연에 많이 오셔서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일시: 10월 8일(수) 저녁 7시 30분, 수요일저녁예배

문의: 김중학 집사 (949)285-9408

◆ OICOS 예배 및 엘리사 새벽기도회

이번 10월 OICOS 예배는 기존과 같이 둘째 주에 모든 성도와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합니다. 특별히 주중에는 예살 공동체 중심으로 엘리사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엘리사 새벽기도회 일시/장소: 10월 7일(화)-10일(금) 오전 5시 30분, 본당

OICOS 예배 일시/장소: 10월 11일(토) 오전 6시, 본당

OICOS 예배 특송: 예살

◆ 101차 베델동산 모집

101차 베델동산이 아직 참가하지 못한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개최됩니다. 기쁨으로 섬겨 주실 봉사자도 모집하오니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일시: 11월 14일(금)-11월 16일(주일)

문의: 김병주 장로 (949)554-5581, 석승진 집사 (949)232-0872



<참가자>



<봉사자>

◆ 셀목자 정기모임

10월 4일(토) 헵시바 기도회 후 본당에서 셀목자 정기모임이 있습니다. 모든 셀목자님들은 참석 바랍니다.

◆ 세례/입교 신청

성인세례 및 입교식이 11월 16일 주일 예배 3부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상자들은 세례 교육 및 문답을 수료해야 하며 교육부는 각 부서에서 교육을 진행하오니 담당 사역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신청 기간/방법: 9월 28일(주일)-10월 12일(주일), 홈페이지

세례 자격: 만 12세 이상(BYM/CIM 이상) 및 베델교회 등록교인(6개월 이상 출석)

입교 자격: 유아세례를 받은 자로서 만 12세 이상(BYM/CIM 이상)

교육 일시: 10월 19일(주일), 10월 26일(주일), 11월 2일(주일) 오후 12시30분

교육 장소: 107호



◆ CGN 개국 20주년 특집 다큐영화 '무명' 상영회

일제 강점기, 조선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찾아온 일본인 선교사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은 영화 '무명' 상영회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많이 오셔서 은혜로운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일시/장소: 10월 11일(토) 오전 7시 30분(OICOS 예배 후), 본당

문의: 손용주 목사 (702)449-2627

◆ 동일본 대지진 15주년 기념 The Bridge Concert

동일본 대지진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를 전하는 자선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아픈 역사를 공유한 두 민족이 마음을 하나로 잇는 다리가 될 이번 콘서트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장소: 10월 25일(토) 오후 6시, 본당

문의: 손용주 목사 (702)449-2627

◆ 장소 사용

10월 5일(주일) 체육관에서 행사가 있습니다. 셀모임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교회학교 교육부기도회: 오후 1시-2시 30분

외부행사(유방암 근절을 위한 행사): 오후 3시-6시 30분

◆ QTin 영문판(10월) 판매

10월 월간 영문 QTin 교재가 실내카페에서 판매중입니다.

◆ 감사드립니다

후임 목사 청빙 설문에 참여해주신 모든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귀한 응답을 바탕으로 청빙위원회는 베델 공동체를 이끌어갈 후임 목사 청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후임 목사 청빙 위원회 드림)

교회학교 주중 모임 안내	주중 예배 및 기도모임 안내	베델뉴스 편집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WANA(어와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parks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K-2학년) - Truth&Training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3-5학년) ■ 중,고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YM(영어중고등부) /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비전채플 - CIM(한어중고등부) /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살롬채플 ■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시 30분, 한국학교 각 교실 ■ 아가학교: 수요일(15-48개월) 오전 9시 45분, 할렐루야채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중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시 30분, 본당 ■ 헵시바 새벽기도회(토): 오전 6시, 본당/온라인 ■ 베델 수요일저녁예배: 오후 7시 30분, 본당 ■ 예살금요일예배(청년): 오후 7시 30분, 임마누엘채플 ■ 주일 레위기기도 모임: 1-3부 예배시간 중, 컨퍼런스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 ■ 편집장: 김경자 권사 ■ 기자: 강정훈 집사, 강은혜 집사, 권두경 집사, 김규현 집사, 김인경, 김유미 권사, 배민정 집사, 박정원 집사, 박혜성 권사, 안정선 권사, 이혜림 집사, 이소영 권사, 황수정 집사 ■ 사진 기자: 박상근 장로, 최호경 집사, 차규양 장로 ■ 번역: Grace Yi 전도사

비전 주차장 3345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주차 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베델/갈릴리수양관 31600 El Cariso Trail, Lake Elsinore, CA 92530 ◆ 수양관전화번호(예약문의) (949) 943-9697 ◆ E-MAIL bgrcenter@hotmail.com

Sunday Worship Sermon Note

Speaker: Rev. Solomon Kang

Breadcrumb Family

Acts 10:9–23

1. If we were to launch a program like the “Conscience Refrigerator” in our society/church/home, what kinds of behaviors should we reward?

2. Identify the similarities between the Jewish Apostle Peter and the centurion Cornelius (Acts 10:2-3; 9-10). Why couldn’t Peter obey the Lord’s voice, “Get up, kill and eat”? (vv. 12-14)

3. What prejudices or bias am I convinced I hold? Apply the “irony” found in today’s passage to yourself (Acts 9:43; 10:6, 10).

4. Is there type of people our church or cell group hesitates to welcome? In what ways are they different from most members? What keeps us from receiving them?

5. Our church is a “breadcrumb family.” Are there opportunities for the gospel we are delaying or missing because of tradition or custom? Who is “the end of the earth” for me?

6. By the grace of Jesus Christ—the true “Tanner”—write down areas where my Kingdom-citizenship mindset needs to renew, and make a concrete commitment today.

Apply to Life



English translations for
worship services via
Discord